

MVP 2014. AUTUMN (NO.41)

# 벤처선교



현장 리서치 특집

## 비전과 긍휼

쿠르드족, 그들을 꼭 찾아야 했던 이유  
쿠르드선교대회를 마치고  
일상 속에서 만난 친구들  
부레이미 짊은 여성들의 스트레스와 여가  
MVP 청소년 캠프 “KEVIN CAMP”

그림북상



그림\_김민숙 간사

“내 정수리까지도 손님인 당신들께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무허가 촌 골목길 끝에 다다를 때까지 대문 밖에서 지켜보던  
그녀와 에미네의 모습을 기억 속에 최대한 오랫동안 담아두고 싶어서  
눈을 떼지 못하고 뒷걸음쳐 한참을 걸었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일테니까...

『산(山) 외에는 친구가 없는 쿠르드족을 찾아서』 중에서

# CONTENTS

MVP 2014. AUTUMN(No.41)



- 02 그림북상 | 김민숙
- 04 비전과 긍휼 | 한수아
- 05 쿠르드족, 그들을 꼭 찾아가야 했던 이유 | 김인애
- 07 쿠르드선교대회를 마치고 | 윤사랑
- 09 일상 속에서 만난 친구들 | 신여호수아
- 14 부레이미 젊은 여성들의 스트레스와 여가 | 김슬아
- 20 MVP 청소년 캠프 “KEVIN CAMP” | 전상일
- 22 MVP선교회 소식
- 23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

## COVER STORY

밤에 환상이 비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행16:9)

## Organization Chart

이사장 신동우 | 실행이사 신종렬 이종훈 이훈민 조명순 지경준 한정국 한천희 홍성원  
협동이사 김동해 김만형 박삼열 성덕수 이지호 조상현 조홍식 정우길  
본부장 한수아 | 총무 이갈렙 장승리 | 벤처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구영삼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김홍빈 | 부원장 김승관 |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김인애 | 연구원 이영배  
본부간사 권선주 김단비 김민숙 문현심 전상일 조대상 최현미 | 협력간사 김아영 손인종 윤여광

발행인 신동우 | 편집인 한수아 | 편집·디자인 김민숙 윤여광 | 웹진 편집 권선주  
발행처 MVP선교회 | 발행일 2014년 10월 7일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67(망원동 378-11) 그린빌딩 5층  
이메일 mvpok01@gmail.com | 트위터 @mvpkorea | 홈페이지 www.mvp.or.kr  
전화 02)703-1215 | 팩스 02)703-1216

Mission Venture Partners 03

## 비전과 궁휼

요즘 IS(이슬람국가)의 무자비한 살상으로 인해 전 세계의 관심과 우려가 높다. 그들은 현재 중국신장으로부터 북아프리카까지 이슬람신자들이 살고 있는 국가와 지역에 신정일치 통치자인 칼리프를 세우고 샤리아 법으로 통치하는 통일된 이슬람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 지역들은 MVP선교회가 사역하는 곳과 거의 일치하기도 해서 우리 마음이 섭섭해 지기도 한다. 그들은 이라크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인종청소같은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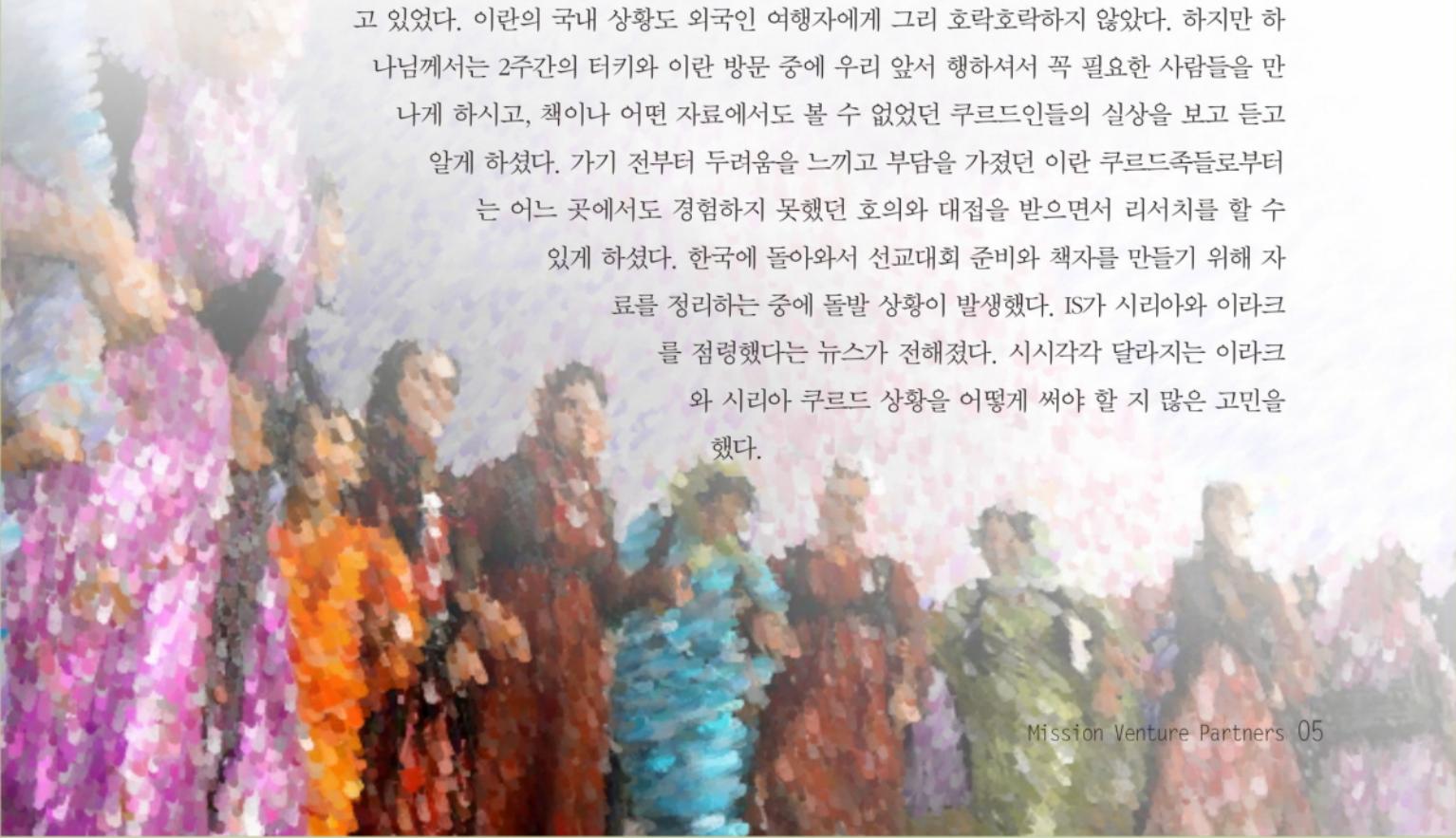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자신들의 비전이 옳다고 생각하면 사람의 생명과 같은 모든 대가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나 종교를 보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신념이나 신앙이 아무리 스스로 고상하다고 할지라도 인권과 생명을 경시하는 이데올로기와 종교는 거짓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고귀한 비전을 내세워 생명을 등한시했던 시절이 있었다. 바로 십자군 운동이다. 무슬림에게 빼앗긴 성지와 고토를 다시 회복하자는 비전이 십자군의 동기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선교를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선교행위는 단순히 비전의 성취가 아니다. 아무리 고상한 비전을 제시할지라도 선교 가운데 자비와 궁휼이 없다면 그것은 자아성취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우리의 모델이신 주님께서는 크나큰 자비와 궁휼로 인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 궁휼의 십자가가 바로 비전성취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전쟁과 혼란, 박해가 있을 때마다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은 여성과 어린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그리고 난민들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다. 우리는 분쟁과 테러, 사회적 혼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보호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 자비와 궁휼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자. **MVP**

# 쿠르드족, 그들을 꼭 찾아가야 했던 이유

김인애 선교사 / 리사원 원장



2012년 가을에 1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가 쿠르드족 리서치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쿠르드족에 대해선 매스미디어를 통해 많이 들었지만 그들에 대한 뉴스가 거의 전쟁과 연관된 것들이라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4개국 중 터키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한국인 신분으로 방문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했다.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에서는 여러 차례 회의 끝에 터키와 이란 2개국 쿠르드족 리서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돌아보면 2014년 1월 쿠르드 연구 모임을 시작할 때부터 하여 8월 21일 쿠르드 선교대회를 마칠 때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3월말에 한국에서 출발하기로 했는데 출발하는 날까지도 총선을 며칠 앞둔 터키에서는 주요 대도시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란의 국내 상황도 외국인 여행자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주간의 터키와 이란 방문 중에 우리 앞서 행하셔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책이나 어떤 자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쿠르드인들의 실상을 보고 듣고 알게 하셨다. 가기 전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부담을 가졌던 이란 쿠르드족들로부터는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호의와 대접을 받으면서 리서치를 할 수 있게 하셨다.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대회 준비와 책자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는 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IS가 시리아와 이라크를 점령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이라크와 시리아 쿠르드 상황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

리서치에 있어 현지방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내에서 문헌조사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할 때만해도 터키 쿠르드 리서치에 대해선 느긋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물론 터키 정부수립 후 자국 내 쿠르드족을 얼마나 심하게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읽고 들었지만 그럼에도 외국인으로서 터키 방문에 대해선 약간의 낭만이 있었다. 하지만 그토록 자유로운 터키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은 다른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강력한 동화정책과 억압은 쿠르드인들로 하여금 더 보수적이고 더 종교적이고 더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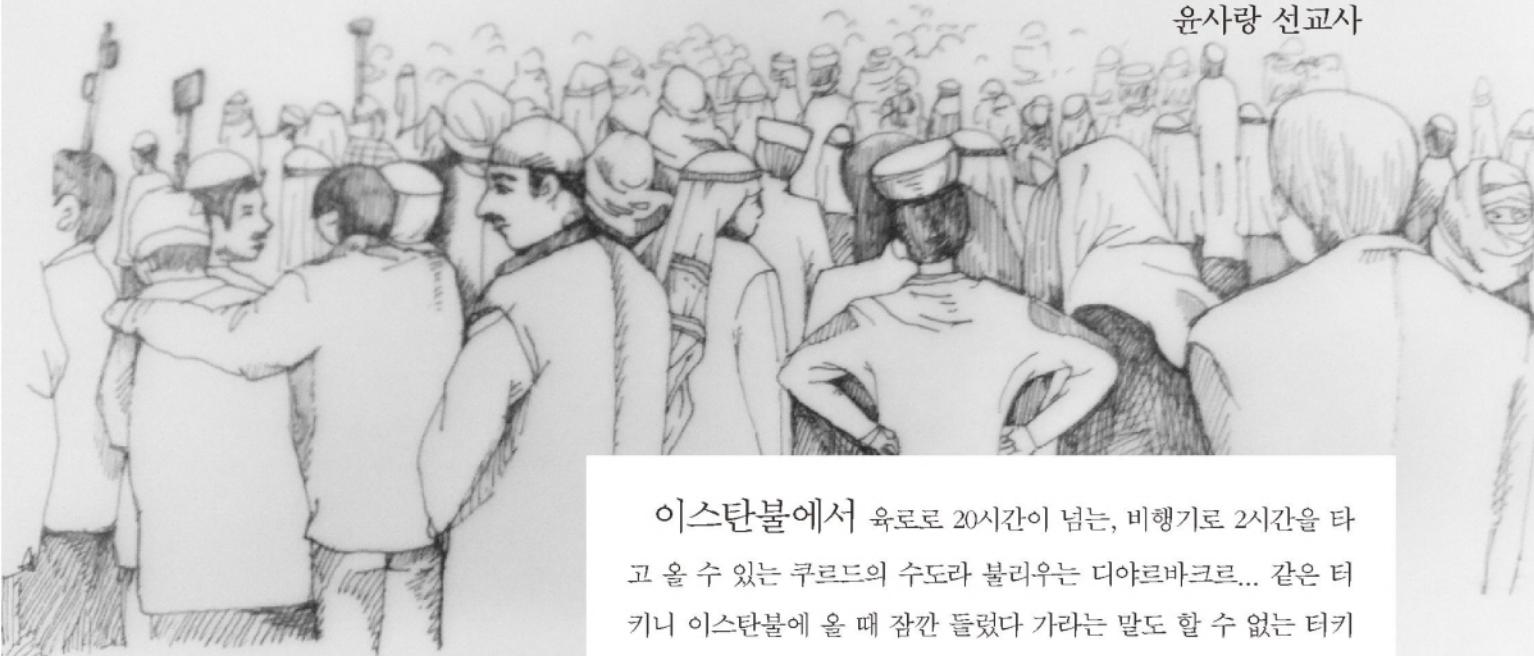
반면 이란의 쿠르드족 방문을 하면서 리서치팀은 충격을 받았다. 한국에서 사전 조사를 할 때도 그랬지만 터키에서 이란 쿠르드 망명자들을 만나면서 이란 방문은 더욱 부담스러워졌다. 리서치팀은 이란을 방문하기 전까지 이란 내 쿠르드족이 시아와 순니에 따라 이란 정부로부터 얼마나 다른 대우와 차별을 받는지, 같은 쿠르드족이더라도 독립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다른지 거의 알지 못했다. 리서치팀이 터키에서 만난 쿠르드인들은 이란 정부로부터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순니 무슬림 쿠르드인들이었다. 이란에서 만난 시아 무슬림 쿠르드인들은 쿠르드인으로서보다 이란인으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나을 정도였다.

리서치를 할 때마다 약간의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다. 요즘은 현지를 방문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보다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반 자료뿐 아니라 학술적 자료도 훨씬 더 많다. 흑자는 거의 대부분의 자료를 한국에 앉아서 얻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현지를 방문해야 하냐며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터키와 이란 쿠르드 리서치를 다녀온 후, 한 종족을 위해 기도하고 동원하기 위해선 반드시 현지 방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현지를 방문하더라도 모든 계층, 모든 연령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두루 만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현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종족에 대한 아우라는 한국에서 문헌조사만으로는 절대 느낄 수도 가질 수도 없다. 그 느낌이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동원하고 기도하게 한다.

4개국에 흩어져 있는 쿠르드족을 소개하는 책자 <산 외에는 친구가 없는 쿠르드족을 찾아서>와 기도책자 <쿠르드 내 친구>는 4명의 리서치팀과 현장 선교사들의 수고, 그리고 현지 쿠르드인들의 호의와 협조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이 작은 두 편의 작품이 쿠르드족을 알고 이해하는데, 그래서 쿠르드족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크게 사용되는 위대한 걸작품이 되길 기대한다. MVP

# 쿠르드선교대회를 마치고

윤사랑 선교사



이스탄불에서 육로로 20시간이 넘는, 비행기로 2시간을 타고 올 수 있는 쿠르드의 수도라 불리우는 디야르바크르... 같은 터키니 이스탄불에 올 때 잠깐 들렀다 가라는 말도 할 수 없는 터키 동남부 지역의 소외된 지역인 디야르바크르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았습니다. 그저 쿠르드를 알리고 싶다는 사명으로 전문 리서치팀이 구성되어 쉽지 않은 길을 돌아돌아 디야르바크르에 왔을 때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생한 현장의 소리들을 쿠르드선교대회를 통해서 알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었는지요. 세계 속에서 잊혀져 버릴 것만 같았던 쿠르드종족이 알려지고 중보되어지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와 상처와 아픔과 현재 상황 등을 알리는 일들이 참으로 의미 있고 쿠르드 역사에서 큰 한 걸음을 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구 없는 쿠르드 영혼들을 한국의 많은 관심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슴에 품을 수 있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쿠르드선교대회의 목적에 부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대회를 계기로 젊은 청년들이 쿠르드를 품었고 또한 쿠르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알게 하신 것으로 인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일상 속에서 만난 친구들

신여호수아 선교사

## 1.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

터키를 여행하다 보면 터키어로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독립된 나라 한번 갖지 못한 민족, 늘 이용당하고 배신과 억압을 당했음에도 꿋꿋이 버텨온 종족, 쿠르드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수천 년을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며 종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수십년간 쿠르드어 사용을 금지 당하면서도 그들은 그들만의 언어로 된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시와 같은 문학작품을 즐겼으며 전통명절과 행사들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민족국가를 건설한 경험이 없는 쿠르드족은 강력한 부족 공동체를 지금도 유지한 채 살아가며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끊임없이 의심하며,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을 주며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친구가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이용하고 배신했던 열강들과 같지 않은 끝까지 기대어 쉴 수 있는 산과 같은 친구.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의 상황은 정말 답답하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IS라는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는 테러그룹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많은 일반 시민들을 대량 학살하는 홀로코스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옛 니느웨 지역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 마을 두 곳이 IS에게 점령당해서 지금 대거 피난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들은 현재 이라크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아르빌이라는 곳으로 피난 와 있고 터키의 디야르바크르와 반 그리고 샨느 우르파로 계속 피난민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IS가 점령한 지역에서 아직까지 피신하지 못한 소수의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죽음의 위협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 IS가 저지른 만행은 이라크 정부군 1,700명을 모두 처형시킨 것 뿐만이 아니라 피난하지 못하고 모술에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며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어린 아이들을 협박한 가운데 단 한 명의 어린이들이 부인하지 않음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메일을 받고서는 두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미의 마음으로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 시대에 행해지고 있는 참상이라고 누군들 상상했겠습니까.



시리아를 거쳐 터키의 디야르바크르... 그 5년의 여정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가슴을 부여잡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쿠르드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그들의 친구로 부르신다는 마음과 디야르바크르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타는 눈물로 다시 한번 그 곳의 예배자로 헌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꺾여진 무릎을 곧추세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쿠르드종족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말씀이 쿠르드종족 가운데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의 진정한 나라 천국을 소유할 때까지 이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쿠르드선교대회의 감격은 그 땅을 다시 밟는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MVP

## 2. 접대성 멘트인가? 진정한 접대인가?

쿠르드인들은 화려함과 멋을 알며 포용성과 관대함이 있어 손님을 후히 대접하는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기를 찾아 온 손님에게 ‘고기가 빠진 음식을 접대하는 것은 굉장히 실례가 되는 것’이라는 극진한 손님 접대 문화가 있습니다. 실제 초대 받아 방문한 쿠르드 친구들 집에서 식사 때 고기가 나오지 않았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님이 집에 도착하면 비스켓류를 곁들인 차이(홍차)를 내오고 주인은 손님과 담소를 나눕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여러 종류의 음식을 차려 대접하며 식사가 끝난 후에는 다시 견과류인 땅콩, 아몬드, 호박씨와 집에서 손수 만든 케이크와 차 그리고 과일을 내옵니다.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식사 와 차이만 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손님이 오면 빛을 내서라도 고기를 사서 대접할 이들이 바로 쿠르드인들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는 이들은 아낙네들도 손님과 섞여 대화에 참여합니다. 한국 일반 가정에서와 사뭇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형편이 아주 어렵지 않으면 집에 식기세척기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식사 후 그릇은 얼른 식기세척기에 넣고 주인 부부가 손님들과 함께 담소를 나눕니다.

## 3. ‘델릴로’를 아시나요?

거의 대부분의 중동에서처럼 쿠르드인들은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릅니다. 시골 지역



에서는 일주일간 잔치를 베풀며 손님들과 함께 춤추고 먹고 마시며 새신랑과 새신부를 축하해 줍니다. 저희 가족도 초대를 받아 결혼식에 가면 그들과 함께 손잡고 춤추며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 줍니다. 한번은 결혼식에 혼자 가게 되었는데 제 딸아이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델릴로 하는데 왜 안 데려 갔어?” 라며 서운해했습니다. 집 앞에서 하는 야외 결혼식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들의 전통 춤인 ‘델릴로’를 못 추게 되어 서운했던 것입니다. 저보다 더 이들의 문화에 익숙한 아이들을 볼 때 문화적응에 있어서는 오히려 어른들 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4. 결혼을 위한 준비

쿠르드인들은 결혼 전에 약혼식과 비슷한 전통예식을 꼭 하는데 남자 집과 여자 집에서 따로 합니다. 이 예식에서도 하루 종일 춤을 춥니다. 보통 가까운 친척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은 신부측에서 남성들은 신랑측에서 ‘크나’라고 하는 예식을 올립니다. 남성과 여성의 손에 결혼한다는 표시로 천연 염색약인 헤나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들의 혼수품은 보통 신부가 주방살림이나 침구류를 준비하고, 그 외의 결혼 예물(목걸이, 반지, 팔찌...)과 가전제품, 신혼집 등 다른 모든 것은 신랑이 준비합니다. 지참금 제도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신부측에서 신랑측에게 아직도 어느 정도의 현금을 요구하는 게 현실입니다.

## 5. 불신과 의심으로 점철된 삶

쿠르드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동족간에도 불신하는데 외국인은 어떻겠는가? 7년 넘게 알고 지내며 동역했던 한 쿠르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뒤에서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지?” 둘 배후를 의심하는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사람들이 쿠르드인들입니다. 쿠르드인들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에 전혀 모르는 사람과 연애 결혼하기를 꺼려합니다. 아직까지 친척 결혼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같은 쿠르드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민족 독립을 위해 산 위로 올라가서 총 들고 투쟁하고, 어떤 이들은 정부 편에 서서 독립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못마땅해하거나 적대시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PKK(쿠르드 노동자당) 소속 게릴라들이 고등학생 자녀들을 산으로 납치해 갔다고 울며 불며 농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족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고, 동족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쿠르드인들입니다.

쿠르드인들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직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느낀 것, 아는 것, 말하고 싶은 것을 가감 없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이들의 특징입니다. 여하튼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좋긴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외국인인 우리를 무시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가’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 6. 별건 다니지 차이(차)집에서는 무슨 일이?

쿠르드인들은 정부에서 일부러 쿠르드족들이 사는 지역을 발전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쿠르드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이 될 정도로 공장이나 회사 등이 없습니다. 당연히 일자리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식통계는 실직률이 20%라지만 쿠르드인들이 느끼기에는 40%가 넘습니다. 대낮에 젊은이들이 차이(차)를 마시며 할 일 없이 앉아 있고, 공부해야 할 청소년들이 마약을 팔러 다니거나 어릴 때부터 상습적으로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나 그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이 네마주이, 껌풀이, 구두닦이를 하며 생활을 연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와 외국에서의 투자가 전무한 상황, 아무도 이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쿠르드인들은 늘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삽니다. 삶이 이렇다는 것을 해당초 인식한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공부와 일을 병행하면서 세상을 헤쳐 나가도록 강하게 도전하기도 합니다.

교제를 나누었던 청년들 중에는 아주 어려서부터 여러가지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고아여서, 또는 집안이 가난하거나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일을 꼭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했거나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땀 흘려 일해야 먹을 수 있다는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 7. 정체성과 통화 사이의 간장

쿠르드인들과 만나 이야기하면 할수록 쿠르드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늘 억눌렸던 자신들의 한과 민족의 독립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세대들 가운데 공무원이나 교사 등 정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민족성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쿠르드 언어를 알면서도 자신들의 아이들에게는 집에서도 터키어로 대화하도록 합니다. 이들은 자식들이 터키인으로 동화되어 차별받지 않고, 좋은 직업을 가져 자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어합니다.

쿠르드 지역의 경제적인 미개발 상태는 그곳 거주민들을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시급함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민족 정체성 강화와 민족 독립은 그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 8. 아직 가야 할 독립의 길, 제한된 자유

미개발 지역이어서 지금 당장은 못 먹고 못 산다 할지라도, 어떤 쿠르드인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우선과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우리들의 자유를 보장하라, 모국어인 쿠르드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평등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라고 목청껏 외칩니다.

불과 15~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모국어인 쿠르드어를 배울 수도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터키에는 우스개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공식적인 나라는 없지만 쿠르드인들은 쿠르디스탄을 상징하는 국기를 갖고 있습니다. 국기의 색깔이 초록, 노랑, 빨강인데 그 색깔이 싫어서 터키 정부에서 신호등 색도 다른 색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터키어에는 없고 쿠르드어에만 있는 알파벳을 써도 된다는 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쿠르드어를 사립학교에 한해서 선택해 배울 수 있다는 법도 생겼습니다. 터키에서 쿠르드인들을 향한 놀라운 변화가 일고 있는 것입니다.

쿠르드의 수도라고 불리는 디야르바크르에는 길거리에서 공공연하게 쿠르드 국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점에도 쿠르드어로 된 책들을 판매하고 곳곳에서 쿠르드어로 대화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이들에게 잊혀진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너도나도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해가 지면 바깥에 돌아다니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대낮에도 납치, 살인이 공공연하게 일어났습니다. 헤즈볼라 및 정부군, PKK 사이의 끊임없는 유혈 충돌로 인해 치안이 말할 수 없이 불안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하면 과히 천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 9. 와서 우리를 도우자

금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매대 사람(사 13:17)인 쿠르드인들을 쓰시려고 주께서 지금 이들의 상황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북부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정부가 있는 지역에는 현재 교회가 개척되었고 쿠르드인들이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 준비되고 훈련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터키에서도 전체를 통틀어 믿는 이가 4,000명 가량 있는데 그 중에 40% 이상이 쿠르드인들입니다. 이는 엄청난 비율입니다. 터키에서 쿠르드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18%인데 신자 중 쿠르드인이 40% 이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영혼은 갈 급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 마약을 하며 자신을 끝없는 나락에 떨어뜨리고 있던 어떤 쿠르드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불 같은 반대와 위협 때문에 집에서 나와 이곳 저곳을 전전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중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늘 열강 가운데 시달림을 받고 이용당하고 침략당하고 일제 식민지 시절의 그 고통과 억압과 박해를 경험했기에 그 누구보다도 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국어를 쓰고 싶어도 못쓰고,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그 쓰린 아픔과 독립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압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터키에서 한국을 돋기 위해 파병한 군인들 중 쿠르드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 중거로 터키 쿠르디스탄이라고 불리는 디아르바크르 지역의 한 골목 이름이 코레 마할레씨(한국 마을)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한국전쟁에 많이 파병되어 참전용사로서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돌아와 살게 되어서 그렇게 마을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들 쿠르드인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우리가 와서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100년 전에 우리가 받은 씨앗, 그래서 이제는 찬란하게 꽂 피고 열매 맺은 이 놀라운 복음의 씨앗. 그것을 그들에게도 전해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외치는 이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맙시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MVP



# 부레이미 젊은 여성들의 스트레스와 여가

김슬아 단기선교사

## I. 서론

아랍의 젊은 여성들은 변화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어느 대학생처럼 스마트폰을 쓰고 대학 수업을 들으며 뷰티살롱에 가서 머리를 손질하고 헤나를 한다. 폐쇄적이고 수동적일 것 같은 아랍 여성에 대한 일반적 편견에 비해 실제 그들의 생활은 생각보다 개방적이고 능동적이다. 이들의 인권 신장 문제는 여전히 남은 과제이나 개개인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을 통틀은 문화적 측면에서 그들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젊은 아랍 여성들의 변화는 근래의 아랍의 봄과 더불어 석유 개발, 인터넷의 보급과 소셜 네트워크의 사용으로 인한 중동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성장을 근거로 들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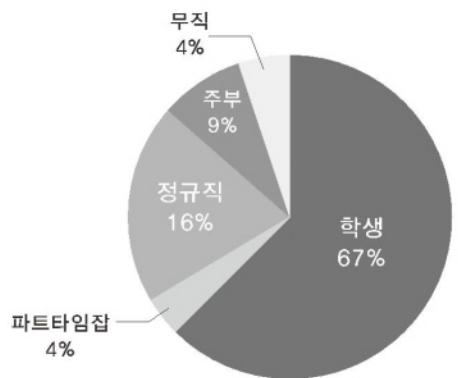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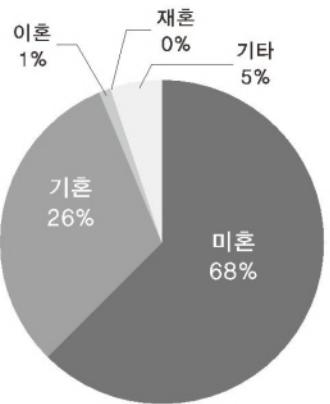
이렇듯 이슬람이라는 강한 종교성 아래 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아랍 여성들의 생활방식의 틀에 균열이 생기는 시점에, 이들을 타겟으로 한 사역자들이라면 새로운 세대의 아랍 여성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오만이라는 특정국가의 주요 도시 부레이미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무엇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시간적 측면에서 여가 시간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더 나아가 내부자적 관점의 효과적 접근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 II. 본론

### 1. 연구 설명 및 응답자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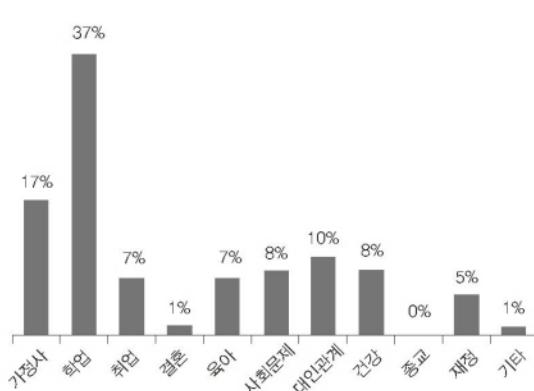
연구 주제는 “부레이미 젊은 여성들의 스트레스와 여가”이며 설문조사로 진행되었고 한국어에서 영어로, 현지인의 도움을 통해 영어에서 아랍어로 번역되었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신상부분과 스트레스, 여가 세 파트로 구성되었고,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 연구하였으며, 만 16세에서 30세 이하의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만 16세는 이전 학급과 분리되어 고등반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며, 관습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사회적 성인이라 생각하여 대상에 두었다. 반면 만 30세 이상의 여성은 혼기가 지난 여성이거나 대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두는 중년기라 생각하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응답자 중 기혼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68%의 여성이 미혼이라 답하였고, 26%가 기혼이라 하였다. 현재 신분을 묻는 질문에는 67%가 학생이며, 정규직과 파트타입잡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20%, 주부 또는 무직으로 특정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총 13%였다. 따라서 이 설문지에서는 미혼인 여성들과 학생 신분의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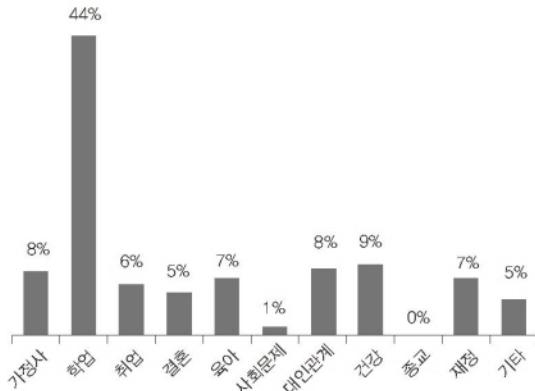


## 2. 스트레스

부레이미 여성들의 스트레스요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묻기 위해 첫째로 과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스트레스를 겪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여성들은 그 요인으로 학업을 37%로 가장 높게 꼽았으며 뒤이어 가정사(17%), 대인관계(10%)가 있었다. 반면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받고 있는 주된 스트레스 요인을 물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학업을 44%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으며, 종교 역시 0%로 현재와 과거 모두 종교적인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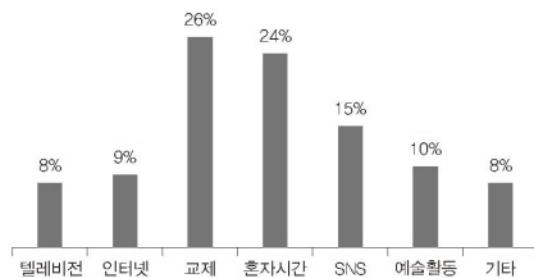


질문1. 과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면,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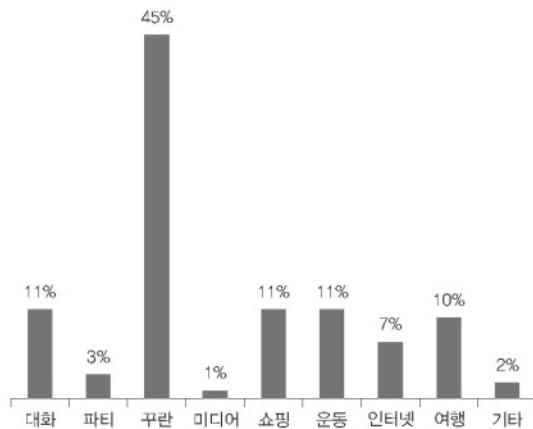


질문2. 현재 나의 주된 스트레스 요인은?

이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교제를 통하여 한다’는 응답자가 26%, 뒤이어 ‘혼자 해결 한다’가 24%로 응답하였는데, SNS와 인터넷, 텔레비전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을 합쳐 ‘미디어’로 묶었을 때 응답률이 3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45%의 높은 비율로 이슬람 성전인 ‘꾸란’을 선택하였고 그 외에 대화, 쇼핑, 운동, 여행의 답변에서는 10% 정도의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특이한 것은 실제로 스트레스를 풀 때 가장 활용도가 높았던 미디어는 이상적 해결방법을 물었을 때 8%(미디어와 인터넷)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문3.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소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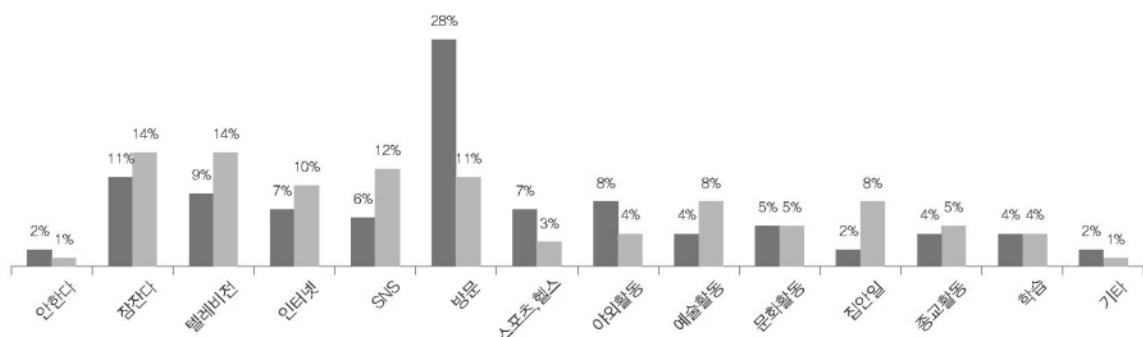
질문4.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위의 설문을 통해 부레이미의 젊은 여성들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를 통틀어 학업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종교생활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으로 답하였다. 스트레스 해결방법에 있어서는 실제로 미디어를 주로 활용하나 이상적 해결 방법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로 꾸란을 선택하였고, 미디어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적었다. 이러한 답변은 여성들 안에 내재된 종교성은 강하나 실제로는 TV나 인터넷, 혹은 SNS등의 미디어 의존도가 높으며 내재된 종교성과 실제 삶의 충돌 지점이라 생각하였다. 즉, 젊은 아랍 여성들이 종교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이슬람이 실제적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스트레스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학업을 꼽은 것에 있어서는 대학수업과 실제 수학 수준과의 괴리 때문이라 고 생각한다. 오만의 모든 대학 강의는 영어강의인 것에 비해 고등과정까지의 수학 수준은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곤 평이하거나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고등과정을 이수하거나, 이후 대학 진학률도 높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학력은 취업과 연결되며 대졸자 여성들이 공공기관에 취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스펙'으로 여겨지는 사회상황과 중매결혼을 많이 하는 아랍 사회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곧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조건과 직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여성들에게 학업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단순 취업때문이기 보다는 생애 단계적 의미에서의 '결혼'의 성취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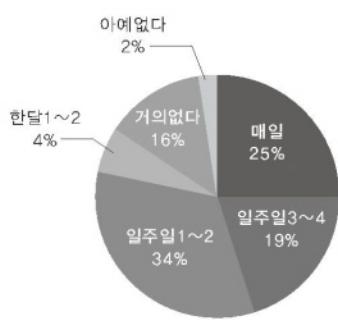
### 3. 여가

다음으로 앞선 부레이미 여성들의 스트레스 해결과 관련한 효과적 접근법을 위하여 이들의 여가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려 했다. 첫째로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는지와 여가시간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주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텔레비전, 인터넷, SNS를 합한 미디어 활용이 각각 14%, 10%, 12%로 총 36%의 응답률을 보였고 뒤이어 '잠잔다'가 14%, '방문한다'가 11%의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여가시간에 하고 싶다'고 답한 것은 방문이 28%로 가장 큰 응답률을 보였다. 주목할 것은 왼쪽의 막대(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비해 오른쪽의 막대(무엇을 하는가?)가, 미디어 사용, 잠자기, 종교 활동, 집안일 등 실내 활동에서는 줄었고, 방문이나 스포츠, 헬스, 야외활동에서는 올라간 것이다. 즉, 실제로 여성들이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된 사회 안에서 실내 활동을 주로하나,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인 야외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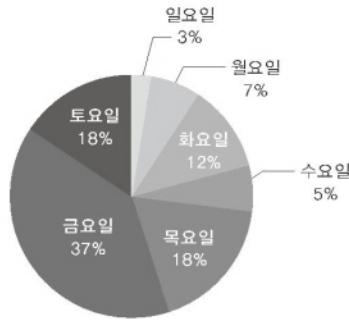


질문 5. 여가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는가?(옅은색) / 질문 6. 여가 시간을 활용할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짙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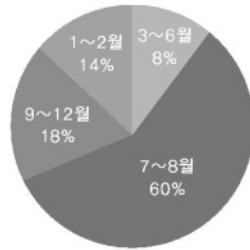
둘째로, 부레이미 짧은 여성들의 실제 여가시간은 언제인지를 알아보았다. ‘일상에서 심심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일 그렇다’가 25%, 일주일에 1, 2번이 34%, 일주일에 3, 4번이 19%로 대개 여성들이 일상에서 심심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일주일 중 가장 여유로운 날은 금요일이 37%, 목요일과 토요일이 둘 다 18%로 금요일, 토요일이 휴일인 아랍 사회에서 주말에 가장 여유롭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 년 중 가장 여유로운 달을 물었을 때 60%의 과반수이상의 여성들이 7, 8월을 꼽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며 미혼인 신분이고, 여름 방학이 길고 겨울방학이 짧은 아랍 학교의 특성상 7, 8월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질문 7. 일상에서 심심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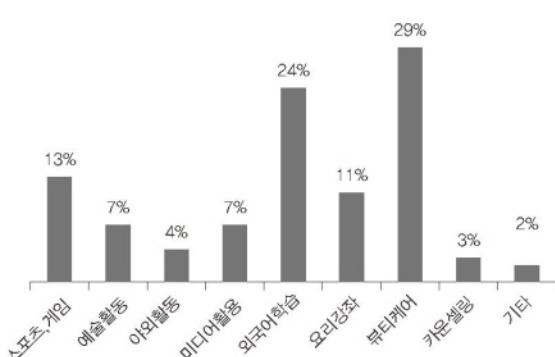


질문 8. 일주일 중 가장 시간이 여유로운 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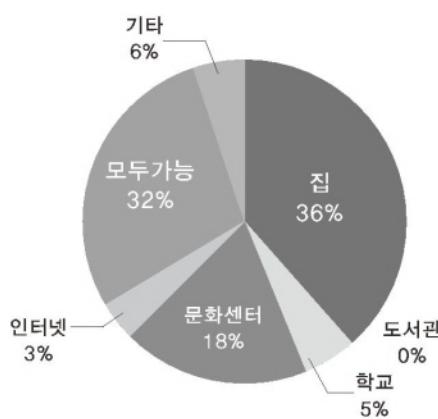


질문 9. 일 년 중 가장 여유로운 기간은?

마지막으로 앞서 조사한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여가 관련 문화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85%가 ‘예’라고 대답하고 15%가 ‘아니오’라고 대답 하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참여할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서 ‘여가 관련 문화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뷰티케어가 2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외국어 학습이 24%, 스포츠와 야외활동이 17%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중 야외활동에 관한 수치는 위의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답변과도 연관되어 여성들의 능동적 활동욕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장소에 관한 질문에는 ‘집’이 36%, ‘모두 가능하다’가 32%로 장소에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10. 여가 관련 문화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질문 11. 만약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어느 장소가 적절한가?

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부레이미 젊은 여성들의 여가시간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7, 8월 중 일주일에 1, 2회 정도 주말에 뷰티케어, 외국어학습 또는 야외활동을 위주로 한 단기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또한 이들의 여가시간이 대부분 실내 활동인 것에 비해 이상적인 여가 활용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앞선 스트레스의 실제적 해소에서 미디어를 사용하였으나 이상적 해결방법으로 미디어가 아닌 꾸란을 품은 것과 관련하여, 이들에게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스트레스 해결방법 역시 적극적 야외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보다 여성들의 능동성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그들의 내적 욕구와 부합하는 긍정적인 여가 활용법이 됨과 동시에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III. 결론

지금껏 부레이미 젊은 여성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해결방법 그리고 여가 시간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아랍 젊은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관점에서 효과적인 접근 방법들을 생각해보았다. 연구자로서 6개월간의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 방법과 더불어 1년 동안 이들과 함께 살면서 체험했던 단기선교사로서의 생각은, 베일에 가려진 아랍 젊은 여성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조건이요 그 베일 속을 알려는 사람의 노력은 충분조건이라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노력이건 주님의 사랑과 더불어 이들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가미해질 때, 주님 나라의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어 참 답이신 예수님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위의 연구가 읽혀지고 쓰일 때 주님 나라가 한 뼘 더 넓혀져 갈 것을 기대함으로 이 연구를 마친다. MVP

# MVP 청소년 캠프

# “KEVIN CAMP”

## 를 소개합니다!

전상일 간사 / 훈련 동원팀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왔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심을 믿고, 이러한 부르심은 그 시대의 다양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1880년대 무디와 로버트 와일더, 존 모트 등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학생자원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이] 약 60년 동안 십만 명의 선교 헌신자를 동원해 세계 복음화의 거룩한 불꽃을 일으켰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도전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들은 최근에 한국교회에 대한 비관적인 통계들과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수많은 도전과 위협 앞에서 선장 없는 배와 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결여된 지식과, 성도의 삶에 대한 무책임한 가르침으로 교회 스스로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 외적으로는 세속화와 다원주의,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극단적인 비관론 앞에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꿈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비전을 분별하지 못하며, 성공을 위한 매뉴얼과 하나님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사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앞에 소위 '선교를 하자'는 말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교회를 향한 이러한 강력한 도전들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며,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이 시대의 장벽들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MVP선교회는 청소년 캠프인 “KEVIN camp”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EVIN camp”는 단순한 회심과 청소년 문제를 상담해주는 캠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시대의 강력한 도전 앞에 믿음으로 모든 도전들을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 달려갈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시도입니다. 따라서 “KEVIN”은 다음과 같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K - Kingdom perspective :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백성의 삶

E - Evangelism : 역사적 복음주의가 지향하는 믿음과 고백

V - View : 성경적 세계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해석하는 삶

I - Integrate : 통합적인 복음, 미전도종족 선교와 사회적 책임이 통합된 복음

N - New generation : 열방을 향해 새롭게 준비되어지는 다음 세대

우리들은 “케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 역사는 역사의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어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케빈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꿈을 꿁니다. “케빈 캠프”가 성령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새로운 운동(movement)<sup>이</sup> 되어 이 일을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5년 후, 10년 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꿈꾸며 열방을 향해 거침없이 도전하는 모습과, 선배들이 완수하지 못했던 남은 과업을 완수하게 되는 그 날을 꿈꿉니다. MVP

# MVP선교회의 새소식입니다



## 1. 열방콘서트

MVP의 열방을 향한 뜨거운 예배 “열방콘서트”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6월 19일에는 ‘중국무슬림 선교의 밤’으로 말씀(김수오 선교사), 중국무슬림 / 카자흐스탄 사역소개가 있었습니다.

7월 24일에는 ‘아라비아반도 / 파키스탄 선교의 밤’으로 말씀(한빛 선교사), 아라비아반도 / 파키스탄 사역소개와 함께 특별히 보배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8월 21일에는 ‘쿠르드 선교대회를 끌어안은 쿠르드 선교의 밤’으로 쿠르드를 위한 중보기도(신여호수아 선교사)를 하였습니다.

9월 18일에는 ‘갈등과 박해가 있는 지역을 위한 특별기도회’로 말씀(한수아 선교사), IS와 쿠르드, 시리아 내전, 신장 위구르에 대한 발표 및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 2. SVM 29기 훈련

2014년 하반기 SVM 훈련이 9월 12일에 개강하여 11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선교사님들의 강의와 훈련생들의 전략발표 등 알찬 시간이 준비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기 SVM 훈련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3. 디브리핑 위원회

8월 7-8일 간사 디브리핑이 있었고, 10월 13일 신여호수아, 윤사랑 선교사의 디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4. MK드림콘서트

‘MK드림콘서트’는 선교사자녀장학기금마련을 위한 음악회입니다. 10월 30일(목) 저녁 6시부터 제공되는 간단한 저녁식사에 이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광화문 근처 ‘내수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 5. 전방개척 세계선교대회

2014년 7월 8일~11일(3박4일), 속초 추양하우스에서 3M 전략과 함께 하는 교회개척 운동’이라는 주제를 갖고 ‘전방개척 세계 선교대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아울러 4~50여명의 MK들을 위한 MVP MK수련회도 동시에 진행 되었습니다.

## 6. 쿠르드선교대회

리서치사역개발원에서 2014년 3월 30일~4월 16일 터키와 이란 쿠르드족 리서치를 다녀와서 쿠르드를 위한 30일 기도책자와 쿠르드 역사, 쿠르디스탄 관문도시, 쿠르드 선교전략에 대한 책자를 8월에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쿠르드선교대회를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 7. 금식기도회

7월(3일), 9월(4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금식기도는 10월(2일) 11월(6일), 12월(4일)입니다. 매주 첫째 주 목요일에 금식기도를 합니다. 금식기도는 수양관 등 외부로 나가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여하실 분들은 본부에 문의 바랍니다(02-703-1215).

## 8. 중보기도팀 모집

MVP선교회의 10개 권역의 선교지 및 선교사님들을 위한 정기중보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월 2째 주와 4째 주 목요일 오전 MVP본부에서 진행되며 중보기도회를 이끌어갈 기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문의바랍니다(02-703-1215).

##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



5,000원

### 북인도행 열차 - 인도 무슬림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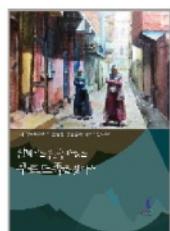
힌두교와 갠지스강으로 유명한 인도에는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1억 7천만명의 무슬림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과거 찬란한 문화를 꽂피웠던 무굴제국의 역사도, 인도아대륙의 대부분을 통치했던 선조들도 자랑거리나 위로가 되지 못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무슬림들은 낙후된 교육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주류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테러리스트', '미니파키스탄'이라는 경멸과 오해를 받으며 소외계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은 이슬람이라는 높은 담벼락을 쌓은 채 현재를 살아가는 희망 없어 보이는 북인도 무슬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 조사하여 엮은 책이다.



2,000원

### 소망의 땅, 타지키스탄을 위한 30일기도

세계의 지붕, '파미르 고원'이 있는 타지키스탄은 투르크 계열의 다른 중앙아시아 4개국과 달리 페르시아계 국가로서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여전히 사역 환경이 열려 있는 페르시아 권역의 중요한 관문 국가이다. 지난 10년간 타지키스탄 현지에서만 사용되어 오던 기도 정보지를 업데이트하고 새롭게 편집하여 기도책자로 내놓게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이름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타지키스탄을 위해 30일간 기도의 여행을 해보시기를 권한다. 100년전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희망이 없던 조선이 21세기 선교대국으로 떠오른 것처럼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권에서 가장 미약한 타지키스탄이 실크로드의 선교대국으로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소망으로 손을 모으자.



15,000원



2,000원

### 산 외에는 친구가 없는 쿠르드족을 찾아서

쿠르드 민족은 인구 3,000만~3,500만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나라가 없어서 '지구의 미아'나 '중동의 집시'로 불리는 세계 최대 유랑민족이다. 성경에 메데족(사13:17, 행2:9)으로 기록돼 있을 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쿠르드족은 1차 세계대전 이후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지에 흩어지게 되면서 나라 없는 수난의 세월을 지금까지 견뎌오고 있다. 쿠르드족은 '산 밖에는 친구가 없다'는 말로 지리적으로 격리되고,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배반당해왔으며, 사회적으로 무시되어진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들은 찾 아온 손님을 위해서 정수리까지 내어줄 정도로 나그네 접대를 극진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터키와 이란에 사는 쿠르드족을 만나고 와서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귀하고 크게 사용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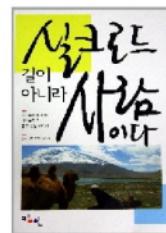
##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



신 가나안 땅 이야기

40%

-10,000원 **6,000원**



실크로드 길이 아니라 사람이다

33%

-15,000원 **10,000원**



종족 창문으로 본 현대선교 I

33%

-12,000원 **8,000원**



종족 창문으로 본 현대선교 II

33%

-12,000원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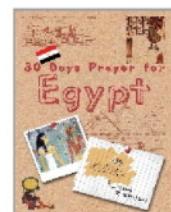
UAE를 위한  
31일 기도



오만을 위한  
31일 기도

50%

-2,000원 **1,000원**



이집트를 위한 기도

50%

-2,000원 **1,000원**

# K Kingdom Perspective

# KEV Evangelism



View



Integration

camp

# IN New Generation

## 제1회 MVP 케빈(KEVIN) 청소년 캠프

주제	"드라마" –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향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 가운데 자신의 역할 찾기!
일시	2015년 1월 19일(월)~21일(수) (2박3일간)
장소	양평 SN 유스호스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147, 전화: 031-771-2700)
대상	중 · 고등학생 선착순 200명 (미자립교회, 대안학교, MK 포함)
회비	65,000원 (인솔교사도 회비를 내셔야 합니다)
주최	MVP선교회
주관	MVP선교회 훈련동원팀 & Ting (ACTS 청소년 사역팀)
문의	02-703-1215 (MVP선교회 훈련동원팀)

# 2014 M.K Dream Concert

선교사 자녀 장학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

[www.mvp.or.kr](http://www.mvp.or.kr)



산돌비전소년소녀합창단



피아니스트 하자경



CCM듀오 코람데오



기타리스트 전민영

일시 : 10월 30일(목) 저녁 7시      장소 : 내수동교회 본당

주최 | MVP선교회      문의 | 02)703-1215      티켓가격 | 1만원

※ 간단한 식사가 6시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수동교회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10-8

MK장학기금계좌 | 국민은행 055201-04-130470(MVP선교회)

MVP선교회는 1999년 미전도종족 복음화를 위해 설립된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보험, 도전, 개척 정신으로 사역하는 최전방 개척선교회입니다. 'MK드림콘서트'는 MVP선교회에 소속된 70여 명의 MK(선교사 자녀)들이 하나님이 일꾼으로 자라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MK드림콘서트의 티켓 판매 수익금은 전액 MK 장학기금으로 사용되며, 위의 계좌로 장학금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수동교회 찾아오는 길]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③ 호선 경복궁역 7번 출구